

# 광주시 '지방기록원' 만든다

### 시·자치구·교육청 기록물 100만여권 보관 예산 311억원 소요...이르면 2013년께 착공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광주지역 공공기관의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한데 모아 보존할 '광주시 지방기록원(가칭)' 건립이 추진된다. 이 기록원에는 전 시·관 등도 설치돼 다목적 종합문화공간을 겸하게 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의 영구기록물 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인 '광주시 지방기록원' 설치를 추진 중이다. 그동안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영구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해 관리해왔다.

개정 기록물법은 자치구와 교육청의 경우는 시·도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

단위 기록물을 통합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5개 자치구와 시교육청의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한 곳에 보존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100만권의 영구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연면적 9천759㎡(2천952평) 규모의 지방기록원 건립에는 시설비 239억원과 보존서가, 전산시스템, 탈산장비 등 장비구입비 72억원 등 3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기록원 건립에 국비를 70% 가량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자치구 및 교육청과 문서량 및 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부담 비율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간 18억원으로 추정되는 운영경비도 배분할 계획이다.

시는 국비 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께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2010년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2013년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치구와 교육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 지방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과 인력 및 조직, 시설규모, 지원조례 제정 등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운영조직은 3~4급 원장 아래 기록지원팀과 기록관리팀 등 2개 팀 25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기록물 조사 결과 시와 자치구, 시교육청, 지역교육청의 보존량은 47만4천여권, 향후 20년 수요량은 69만7천여권 등 모두 117만여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광주시청 행정동 2층 보존서고의 보존량은 2만9천607권이며,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문서는 1만579권에 이른다. /정후식기자 who@

# 맨홀 뚜껑에 디자인 입힌다

### 공공디자인 접촉 제작 광주시 내달부터 설치

광주시내 하수도 오·폐수관의 맨홀뚜껑(사진)에 공공 디자인이 접목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자체 디자인한 하수도 맨홀뚜껑 디자인이 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본격 양산체제에 돌입, 다음달부터 서구 쌍촌동, 내방동, 화

정동 등지에 900여개를 설치한다.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접목된 맨홀뚜껑에는 디자인은 물론 하수도 시설로서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기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맨홀뚜껑에는 빛고를 광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한글 '빛'과 한문 '光'의 합성어가 새겨져 있고, 바깥쪽에

는 햇살이 퍼지는 모습이 담겨있다.

시는 새 맨홀뚜껑을 자체사업과 자치구 발주 공사는 물론, 시 전역에 새롭게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하수도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시설물이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조화를 게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해



야 한다"며 "새로운 맨홀뚜껑이 도시미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22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자활한마당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막대풍선을 들고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갖고 있다. 행사에는 자활 근로자 950명, 자활센터 종사자 50명 등 모두 1천여명이 참석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단풍철 무등산행 시내버스 증차

가을 산행객들을 위해 무등산장을 오가는 시내버스가 한시적으로 증차 운행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락철 교통편의를 위해 무등산장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1187번) 외에 1개 노선(1187-1번)을 증차, 오는 25일 ~ 11

월30일까지 운행한다.

증차된 버스는 문화전당~산수오거리~4수원지~원효사 구간을 경유하며,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에 한해 7차례 운행된다.

이 버스는 기존 1187번 노선(광천터미널~광주역~롯데백화점~문화

전당역~산수오거리~4수원지~원효사)의 운행 시간대와 중복을 피하는 대신, 이용 수요가 많은 오전 8시~오전 10시, 오후 4시~오후 6시에 집중 배차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내버스 이용 수요를 감안한 탄력적 운행(중·감차)을 확대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시민·기업 등 참여 자율 관리구간 지정 광주천 함께 가꾸기

광주시가 시민과 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광주천 함께 가꾸기 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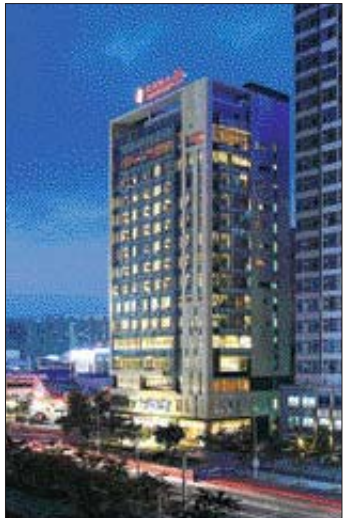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과 병행해 시민과 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광주천 함께 가꾸기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천 전 구간에 대해 기업과 시민·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관리 구간을 지정, 자율 관리토록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내년말 완공 계획인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병행해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깨끗한 광주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개월 동안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를 통해 시민·단체·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관리 구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 호텔 '라마다플라자 광주' 오픈 상무지구 17층 규모 120개 객실



호텔 '라마다플라자 광주'(대표 김대원)가 23일 문을 연다.(사진) 광주시 서구 차평동에 자리한 '라마다플라자 광주'는 지하 3층 지상 17층 규모로 스위트룸 41실과 프레지던셜 스위트룸 1실 등을 포함 총 120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라마다 플라자 광주'는 전세계적인 호텔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는 호텔그룹인 라마다 호텔로부터 최상급 호텔을 의미하는 '라마다 플라자' 칭호를 받았다.

호텔 객실에는 42인치 PDP와 초고속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별

도의 작업공간을 배치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14층~15층은 비즈니스 전용 공간으로 모두 21개의 객실이 갖춰져 있으며, 회의실과 인터넷 무료 이용이 가능한 공간도 마련돼 있다.

3층에는 연회실을 갖춘 식당가, 5층에는 13개의 별실로 구성된 비즈니스 클럽이 입주했다. 2층에는 다양한 사우나 공간을 비롯해 스파와 테라피시설, 헬스장비를 갖춘 휘트니스 센터가 입주해있다.

한편, 라마다플라자 광주는 23일 오후 2시 4층 연회장에서 오픈식을 갖고 오후 7시부터 호텔 17층에서 어쿠스틱 기타리스트 '도미 엠마뉴엘',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축하공연도 개최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동명동) 082-227-9940 총장점 (동남동) 082-227-9970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학업 코멘트! 미국에서 성공!  
합격생 인터뷰! 매일 오후 3시~4시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학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0834-6253

캐나다, 미국  
한의학이 될수있습니다!

저탄식 순간 전기 보일러 온수기  
\*신상, 온수, 근심걱정 해결

가용급대비 80~80% 절감효과

MODEL	출력	수용능력	연간소비량
LS30-13kW	30kW	10~15명	4,000kWh
ES30-13kW	30kW	10~15명	4,000kWh
ES15-6kW	15kW	5~8명	2,000kWh
ES10-4kW	10kW	3~5명	1,300kWh
ES5-2kW	5kW	1~2명	650kWh
ES3-1kW	3kW	1~2명	400kWh
ES2-0.5kW	2kW	1~2명	250kWh
ES1-0.2kW	1kW	1~2명	125kWh

무로성배번호 080-909-0088  
귀부번호 010-9469-9373